

한국판 Shapiro 통제 척도(K-SCI)의 타당화 연구

성승연* 박성현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Shapiro(1994)가 개발한 통제 척도(Shapiro Control Inventory)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심리 측정적 속성을 분석하고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총 559명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 분석과 문항 평가를 실시하여 한국판 Shapiro 통제 척도(K-SCI)를 구성하고, 신뢰도 분석 및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요인 구조를 확인하였다. 원 척도의 요인 구조와 동일하게, K-SCI 일반 통제 영역에서는 긍정적 통제감, 통제 욕구, 부정적 통제감의 3요인이 확인되었고, K-SCI 통제 양식에서는 긍정적 유위양식, 긍정적 무위양식, 부정적 유위양식, 그리고 부정적 무위양식의 4요인이 추출되었다. 통제 소재, 대처 양식, 마음챙김, 수용 행동, 우울, 불안, 및 안녕감 관련 척도를 사용하여 K-SCI의 수렴 및 공존 타당도와 증분 타당도를 평가하였다. 끝으로, K-SCI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통제, 통제양식, 통제감, 통제 욕구

심리학에서 통제란 “의도한 방향으로 영향력을 일으키는 능력”으로 정의된다(Rothbaum & Weisz, 1989). 특히, 서구 심리학에서 긍정적인 통제의 의미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주장적인 변화 양식으로 사용되어왔다. 통제에 관한 본격적인 심리학적 연구는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다. 통제 연구에 자극을 준 몇 가지 흐름으로는 유능성(competence)이나 통제 불능(dyscontrol)에 관한 신-분석적 관점(White, 1959), 초기 사회 학습 이론(Rotter, 1966), 그리고 인지 이론가들의 자기-통제와 인지 과정에 대한 연구(Meichenbaum, 1977) 등을 들 수 있다(Astin & Shapiro, 1997에서 재인용).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삶에서 통제감을

얻고 유지하는가에 관한 이해를 넓혀왔다.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과 타인 그리고 자기 내면의 감정, 인지, 그리고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다. 통제감을 얻고 유지하는 능력은 진화적인 생존에 필수적이며(Averill, 1973), 정신 건강과 심리치료의 중심요소일 뿐 아니라(Bandura, 1989; Seligman, 1991) 신체적 건강에도 중요하다(Wallston & Wallston, 1978).

통제를 갖고 있다고 믿는 신념은 실제 통제감을 갖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즉, 통제에 관한 한 개인의 자기-지각이 적응과 안녕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각된 통제를 측정하려는 시도가 심리학내에서 지속되어 왔는데 통제에 관한 연구는 대개 다음의 두 가지

* 교신저자 : 성승연,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1038-2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전화 : 02) 890-2834,
E-mail : sungair@unitel.co.kr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첫 번째는 통제에 관한 연구 주제가 일반 영역에서 특수 영역으로 분화되고 있으며, 두 번째는 통제의 구성개념이 단일 구성개념에서 다면적 구성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Shapiro, Schwartz, & Astin, 1996).

통제 측정 연구의 첫 세대는 Rotter(1966)의 내외 통제 소재 척도(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Scale)라고 할 수 있다. 통제의 소재란 개인의 행동이 자신의 환경을 통제하거나 지배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효율적인가에 대한 신념, 혹은 기대를 말하는 것이다. Rotter(1966, 1990)의 모형에서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내적 통제와 외적 통제의 연속선 상의 어딘가에 속한다고 본다. 내적 통제는 자신에게 발생하는 사건들이 자신의 의지나 행동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는 신념을 말한다. 반면, 외적 통제는 개인에게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건이 자신의 행동과는 관련이 없으며 따라서 개인의 통제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지각을 의미한다(Lefcourt, Miller, Ware, & Schenk, 1981). 이 척도는 강제 선택형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영역에서 한 개인이 지각하는 통제의 소재가 내부인가 그렇지 않으면 외부인가의 단일 구성개념을 측정하고 있다.

통제 소재와 심리적 적응 및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졌다(Levenson, 1973). 내적 통제 집단은 외적 통제 집단보다 낮은 수준의 특성불안을 가졌으며(Benson, 1991), 개인의 통제 소재에 대한 지각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매개하였다(Ray & Katahn, 1968; Strassberg, 1973). 또한, 내적 통제력의 지각이 높은 사람들은 외적 통제를 하는 사람들에 비해 우울감 수준이 더 낮았다. 일반적으로, 내적 통제를 하는 사람들은 더 잘 적응하고, 덜 불안하고, 정신과적 진단명을 덜 받게 되는데, 이는 내적 통제를 하는 사람들이 능동적이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적응에 유리한 성공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일수 있다고 보고한다(Phares, 1976). 통제 소재는 또한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였다. 내적 통제 소재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덜 위협적으로 평가하였고, 자신의 수행에 대해서는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안귀여루, 2001). 내적 통제를 하는 사람들은 개인적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성을 가지며, 이를 통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다 더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준다(Phares, 1976). 또한, 내적 통제자들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서도 보다 긍정적인 기대와 동기를 갖고 적극적

으로 상황에 대처하였다(이형초, 최정운, 1993).

통제에 관한 두 번째 세대의 측정도구는 Wallston에 의해 만들어진 건강 통제 소재 척도(Health locus of control scales)라고 할 수 있다(Wallston, Wallston, & DeVellis, 1978). Rotter의 척도와 대조적으로, 이 검사는 건강이라는 특수 영역에 대한 통제 소재를 다루고 있다. 또한, 이 검사는 Rotter의 척도가 반영하는 내적, 외적 통제 소재에 더해 우연(external chance)이라는 통제의 원천을 추가하고 있다. Wallston 과 Wallston(1981)은 사람이 질병에 걸렸을 때 건강 통제의 소재를 어디에 두느냐의 성향 차이가 일상 생활에 적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안하였다. 여러 연구들은 내적 건강 통제 소재를 가진 사람들이 기능적인 통증 대처 방법을 사용하는 반면 외적 건강 통제 소재를 가진 사람들은 부적응적인 통증 대처 방식을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정연승, 이영호(2005)에서 재인용; Affleck, Tunnen, Pfeiffer, & Fifield, 1987; Frank & Elliot, 1989; Jensen & Karoly, 1991). 이 검사는 통제 연구의 범위를 건강이라는 특수 영역으로 분화하였고, 통제 소재의 개념을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수 영역에 관한 통제 척도로는 이 밖에도 Clifford(1988)의 학교 공부와 관련한 통제 소재 척도를 들 수 있다.

통제의 구성 개념을 외부 세계에 대한 개인적 통제 능력 혹은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정의해왔던 기존의 통제 이론에서는 환경에 대해 능동적이고 도전하며 저항하고 극복하는 외향적 행동을 중요시하고, 수동적이고 내향적인 행동은 곧 통제 동기의 포기나 통제 불가로 간주되어 왔다(김상희, 최정훈, 1990). 서구 심리학 연구에서, 상황이나 자신을 수용하는 방식의 통제에 대해 *이차적*(Weisz et al., 1984), *보완적*(Maddi & Kobasa, 1984), 그리고 *정서 완화적*(Lazarus, 1981) 등과 같이 명명한 사실로 보아도 능동적인 변화 전략을 취하지 않는 통제 양식에 대해 다소 부정적이고 부차적인 방식으로 취급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향적 행동이 통제의 포기라기 보다는 오히려 통제를 유지하려는 다른 방식의 노력이며, 이러한 방식의 통제 행동이 병리적 현상이 아니라 제한된 능력과 운 같은 외적 제약의 작용 가능성을 인정하고 무모한 도전으로부터 오는 실패와 그로 인한 실망감과 무기력에서 개인을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을 얻게 하는 긍정적 기능을 갖는 적응 유형의 하나임을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

(Rothbaum, Weisz, & Snyder, 1982). 이들에 따르면 일차적 통제는 환경 세계에 대한 통제로서, 타인, 대상 및 환경 조건 등 외부의 현실을 자기에게 합치하도록 영향을 끼침으로써 보상을 얻으려 하지만, 이차적 통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로서, 자기의 기대, 목표, 원망 등 내적 속성을 외부 현실에 맞게 변화시킴으로써 보상을 얻으려한다. 즉 일차적 통제는 자아의 욕구에 맞게 환경적 사상을 변화시키려는 시도이고, 이차적 통제는 환경에 부합되게 자아를 일치시키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조공호, 2003).

이러한 일차적 통제와 이차적 통제에 대한 선호는 문화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Weisz, Rothbaum 그리고 Blackburn(1984)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인들은 미국인보다 외부 통제 유형이 많고, 타인 및 집단과의 연합을 선호하며, 아동 양육과 사회화 양식, 종교와 철학, 직업 및 심리치료의 장면에서도 이차적 통제를 추구하는 경향이 더 많았다. 동양권에서 이차적 통제가 지배적인 통제 양식은 싱가포르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밝혀졌으며(Chang, Chua, & Toh, 1997), 최상진(1995)은 이차적 통제가 한국인의 특징적인 통제 양식이라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조공호, 2003에서 재인용).

이차적 통제 개념을 주창한 Rothbaum 등(1982)은 두 가지 통제 방식이 유연하게 결합되는 것이 최적의 적응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Shapiro와 Astin(1998)은 통제와 관련된 동서양의 문헌들을 탐색한 후 이들이 통제에 관한 두 가지의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고 제안했다. 첫 번째 주제는 보다 큰 개인적인 통제력을 획득하는 것과 자신 및 자신의 경험을 통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었으며(assertive mode), 두 번째 주제는 적극적인 통제에서 놓여나서 자신을 우주, 신, 혹은 자연의 흐름에 맡기고자 하는 태도(yielding mode)였다. 두 번째의 주제는 이차적 통제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1980년대 이후 명상을 포함한 동양적 철학과 수행법들이 과학적으로 연구되면서 본격적인 관심을 끌었다고 할 수 있다. 명상 수련에서는 수용을 함양하고, 통제를 놓아버리는 훈련을 통해 통제 욕구는 감소하는 반면, 긍정적인 통제감과 일상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자기-조절 능력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들에 의해 입증되어 왔다(박성현, 박정숙, 2006; 박성현 2007; Eastering, 1992 Shapiro, 1992). Shapiro와 Astin(1998)은 심리적 건강은 두 가지 긍정적인 통제 양식(assertive/ yielding)

의 통합 그리고 이 두 가지 통제 방식을 조화롭고 융통성 있게 활용하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Astin과 Shapiro(1997)는 Rotter와 Wallston이 개발한 통제 소재 검사들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첫째, 두 가지 측정 도구들은 전반적(overall) 영역과 다양한 특수 영역 모두에서 한 개인의 “통제감”(sense of control)을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두 검사 모두, 통제 소재와는 다른, “통제에 대한 욕구”(desire for control)를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두 검사 모두, 긍정적인 통제를 대부분의 서구 심리학적 이론과 일관되게 주체적, 적극적, 그리고 도구적인 것으로 개념화하고 있어서, 수용적이고 흘러가게 하는 방식(yielding control mode)의 통제 양식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즉 “통제양식”(modes of control)에 대한 개념화가 적극적인 변화 전략에만 초점을 두는 유위 양식(assertive mode)에 한정되고 있어서 지나치게 통제를 포기하는 부정적인 무위 양식(negative yielding)과 수용과 순리에 따르는 형태의 긍정적인 무위 양식(positive yielding)간의 구분에 실패하였다는 것이다.

Shapiro의 통제 척도(Shapiro Control Inventory) : Shapiro가 개발한 통제 척도(이하, SCI)는 Rotter와 Wallston의 통제 척도의 한계를 보완하며 만든 세 번째 세대의 통제 척도라 할 수 있다. 총 18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 통제 영역(general domains of control), 특수 통제 영역(specific domains of control), 그리고 통제 양식(modes of control)의 세 가지 영역에 걸쳐 9개의 하위 척도를 포함하고 있다. 일반 통제 영역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통제감과 통제 욕구를 측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수 통제 영역은 24개의 특수한 주제별(예로, 섭식 행동, 체중, 음주, 대인 관계 등) 통제감을 측정한다. 통제 양식은 긍정적 유위 양식(positive assertive mode), 긍정적 무위 양식(positive yielding mode), 부정적 유위 양식(negative assertive mode), 및 부정적 무위 양식(negative yielding mode)의 네 가지 통제 방식을 구분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SCI가 측정하고 있는 주요 측면들로는 첫째, 통제감(sense of control)으로서 이는 “한 개인이 통제를 갖고 있다는 지각 혹은 자신이 원하면 그러한 통제를 얻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정의한다. 일반 통제 영역에서 전반적 통

제감(척도1), 긍정적 통제감(척도2), 부정적 통제감(척도3)의 3가지 하위 척도와 특수 통제 영역에서의 통제감(척도4)으로 측정한다. 두 번째는, 통제의 동기(motivation of control)로서 한 개인이 통제에 대한 욕구가 높은지 낮은지를 측정하며 일반 통제 영역의 통제 욕구(척도5) 척도가 이에 해당한다. 세 번째는 통제 양식(modes of control)이다. 이는 통제를 획득하고 유지하는 것에 관한 인지적, 행동적 양식으로서, 긍정적 유위 양식(척도6), 긍정적 무위 양식(척도7), 부정적 유위 양식(척도8), 그리고 부정적 무위 양식(척도9)으로 구분된다. 긍정적 유위 양식은 주체적이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통제 방식이며, 긍정적 무위 양식은 경험을 흘러가게 하고, 수용적이며, 유연하고, 순리에 따르는 통제 방식을 의미한다. 부정적 유위 양식은 과도하게 통제적이며, 요구적이고 경직된 방식의 외향적 통제 방식이며, 부정적 무위 양식은 무기력, 포기과 같이 지나치게 수동적이며 통제 노력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체중을 감량하고자 하는 경우, 긍정적 유위 양식은 현 상태에 대한 점검과 함께 합리적인 다이어트와 운동 계획을 세우는 활동을 의미한다. 긍정적 무위 양식은 현재의 불만족스러운 상태와 체중 감량에 따른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갖는 방식이다. 반면, 부정적 유위 양식은 공격적인 방식으로 무리하게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밀어붙이는 과도한 통제 방식에 해당하고, 부정적 무위 양식은 현 상황에 대해 변화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반응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 언급했던 9개의 주요 하위 척도 이외에도 SCI는 통제 소재와 유사한 통제의 주체(agency of control)를 측정하는 문항 및 과도 통제를 측정하는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자들이 SCI 척도를 번안하려했던 주요 이유 중 한 가지는 SCI가 서구 심리학에서 간과해왔던 자연과 우주의 흐름에 결과를 맡기는 수용적인 동양적인 통제 방식에 대해 긍정적 의미를 탐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SCI는 통제의 구성 개념을 적극적인 변화 노력은 긍정적이고, 수동적인 포기는 부정적이라는 기존 서구심리학의 양극적 관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변화 추구 방식도 상황에 따라 부정적일 수 있으며, 수동적으로 흐름에 맡기는 방식도 긍정적인 통제 양식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 통제의 개념을 다차원적으로 확장시켰다.

동서양의 신비주의 철학과 명상 수행을 연구한 많은 연구자들은 수용적인 통제 양식과 유사한 개념들을 제안해 왔다. 신비주의 연구자인 Deikman(1971)은 '양면적인 의식(bimodal consciousness)'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다. 인간의 의식은 적극적 양식과 수용적 양식으로 구성된다. 적극적 양식은 개인적인 목표의 성취를 향해 지향된 추구의 상태로서 상대적으로 언어적, 행동적이며 골-근육 체계가 관여된다. 수용적 양식은 내적으로 지향된 내성적이고 반성적인 태도로서 지각적 수용과 관련되며 비-행동적 수준에서 작용한다. 적극적 양식은 부정적인 정서를 일으키는 자극에 대해 그러한 자극을 제거하려고 하거나 회피하는 태도를 말한다. 대부분의 심리적 장애를 갖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식의 왜곡으로부터 기인하는 부정적 자극이나 경험에 대해 회피하거나 투쟁하려고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들을 오히려 지속시키거나 악화시킨다. 수용적 양식은 경험이 흘러가도록 허용하는(letting-go) 태도이다. Hayes(1994)는 명상 훈련을 통해 부정적인 정서를 있는 그대로 완전하게 경험하는 수용 능력이 배양되며, 이를 통해 심리적 문제의 공통 원인인 회피 행동이 감소된다고 주장한다. Linehan(1993)은 수용을 순간순간의 사적인 경험을 향하는 적극적인 과정으로 보았다. 근본적인 수용(radical acceptance)은 제한이나 왜곡, 판단, 평가, 유지하려고 애쓰, 제거하려고 애쓰 없이, 경험에 있는 그대로 완전히 열려있는 것이며, 무언가를 원함이나 원치 않음 없이 경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최근 수용이나 마음챙김 등 동양적 가치나 명상의 원리를 치료의 핵심 요인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인지행동 치료의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김정호, 2004; 문현미, 2005). 인지 행동 치료의 제 3 동향이라고 일컫는 새로운 치료법들은 인지 내용의 변화나 행동 변화를 위한 인지 행동적 기술의 습득과 같은 기존의 인지 행동적 접근과 더불어 내적 경험들에 대해 알아차리고 수용하는 방식을 유연하게 통합하는 접근을 취한다(Hayes, Wilson, Gifford, Follette, & Strosahl, 1996; Linehan, 1993). 이러한 새로운 흐름들은 유위적 노력과 무위적 수용을 통합하고, 그것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하는 것이 심리적 건강을 특징짓는 삶의 방식이란 점에 동의하고 있다.

Shapiro와 Astin(1998)은 SCI 척도를 이용하여 통제 양식 프로파일과 정신 건강, 신체 건강, 안녕감, 및 대인 관계 양식 등과의 관계를 연구하였으며, 특히, 건강 심리

학적 관점에서 만성 질환 환자나 말기 환자들의 안녕감과 수명에 미치는 개인의 통제 방식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국판 SCI의 타당화를 통해 개인의 통제 방식과 관련된 건강 심리학의 주제들을 다양하게 연구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또한, 한국판 SCI가 최근 국내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 명상을 응용한 심리치료의 연구에도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SCI의 복잡한 구성 요소를 고려하여, 9개 하위 척도 중 우선 일반 통제 영역의 4가지 척도(진반적 통제감, 긍정적 통제감, 부정적 통제감, 및 통제 욕구)와 4가지 통제 양식 척도를 번안하고자 하였다. 한국판 Shapiro 통제 척도(이하, K-SCI)의¹⁾ 번안 과정에서 다음 두 가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첫째, 번안 방법은 역 번안 기법을 사용하였다. 역 번안 기법은 먼저 검사 도구를 한국어로 번역한 후, 다른 번역자에 의해 다시 원 검사 언어로 전환되며, 최종적으로 원 검사와 역 번안된 검사 문항을 비교 평가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방식을 말한다(손원숙, 2003). 다양한 연구에서 역 번안 기법이 번역 초기 과정에서 번역의 질을 평가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안하고 있다(Hulin, Drasgow, & Komocar, 1982; 김아영, 임은영, 2003; 최윤희, 이희경, 이동귀, 2008). 두 번째, 척도의 구인 동등성(construct equivalence)을 확보하기 위해 통제 양식 척도의 문항들에 대해 요인 분석 외에 별도의 문항 평가를 실시하였다. 구인 동등성이란 원 검사와 번역된 검사 문항들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특히, 통제에 관한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가 예상되기 때문에(조궁호, 2003) 원 검사에서 측정하고 있는 구인이 한국인에게도 동일한 형태로 인식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 1. K-SCI 일반 통제 영역 및 통제 양식 척도의 요인분석

방 법

연구 대상자

수도권 및 지방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326명을

1) K-SCI는 SCI의 개발자인 미국 캘리포니아대 교수 Dr. Deane H. Shapiro의 허락을 받아 번안했음을 밝힌다.

대상으로 K-SCI 일반 통제 영역 및 통제 양식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남자 113명(36.1%), 여 200명(63.9%)으로 313명이 참여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21.48세($SD=2.34$), 범위는 18-29세였다. K-SCI 통제 양식 척도 문항들의 문항 평가는 대학원생 45명(남 11명, 여 34명, 연령 평균 32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탐색적 요인 분석과 문항 평가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된 K-SCI 일반 통제 영역 및 통제 양식 척도의 요인 구조를 확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여기에는 대학생 201명이 참여하였다. 남자 89명(44.3%), 여자 112명(55.7%)이고, 평균 연령은 21.03세($SD=2.33$), 범위는 18-28세였다.

연구 절차

Shapiro Control Inventory를 한글로 번안한 한국판 Shapiro 척도를 수업 시간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총 수거된 542개의 설문지 중 설문 내용이 부실하거나, 연령이 30세 이상인 자료를 제외하고 총 514명의 자료를 요인 분석에 사용하였다. 313명의 자료는 척도의 요인 구조를 탐색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 분석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201명의 자료는 요인 구조의 확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K-SCI 통제 양식 척도 문항들의 문항 평가를 위한 설문지 또한 심리학과 대학원생들의 수업 시간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측정 도구

SCI 통제 척도(Shapiro Control Inventory : SCI)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Shapiro(1994)가 개발한 Shapiro Control Inventory를 본 연구자들이 한글로 번안한 한국판 Shapiro 통제 척도(K-SCI)이다. 척도의 번안 과정은 다음과 같은 3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1단계에서 영어 번역에 능통한 심리학과 대학원생과 연구자들이 SCI를 한글로 번역하였다. 2단계에서는 미국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심리학과 박사 과정에 재학중인 이중 언어자(bilingual)가 1단계에서 번역된 한글 본을 영어로 재 번역하였다. 3단계에서 한국의 대학에 교환 교수로 있는 영어 원어민이 SCI 원문과 2단계에서 재 번역된 척도를 비교 하면서 내용면에서의 차이를 점검하고 yes, no로 평정하여 no로 평정된 문항에는 의견을 피드백하였다. 이 과정

을 통해 연구자들이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한글판 SCI 문항을 완성하였다.

K-SCI는 모두 187문항으로서 9개의 하위 척도(전반적 통제감, 긍정적 통제감, 부정적 통제감, 통제 욕구, 특수 영역 통제감, 긍정적 유위 양식, 긍정적 무위 양식, 부정적 유위 양식, 부정적 무위 양식)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통제의 주체, 과도 통제, 통제 만족도 통제에 대한 변화 기대 등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는 통제에 관한 다면적인 측정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SCI의 복잡한 구성 요소와 방대한 문항들을 고려하여, 우선 일반 통제 영역에 속한 통제감 척도 16문항, 통제 욕구 척도 11문항과 통제 양식에 포함된 긍정적 유위 양식 16문항, 긍정적 무위 양식 14문항, 부정적 유위 양식 13문항, 부정적 무위 양식 5문항 등 총 75문항에 대한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통제 양식에 속한 문항들에서는 동서양 문화적 차이에 의한 구인 동등성을 확인하기 위해 문항 평가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탐색적 요인 분석과 문항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K-SCI 일반 통제 영역과 통제 양식 척도들의 요인 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K-SCI 일반 통제 영역 및 통제 양식 척도의 요인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 분석을 위해 문항-총점간 상관과 내적 합치도를 검사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확인적 요인 분석은 AMOS 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K-SCI 일반 통제 영역의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검증, 및 확인적 요인분석

SCI 척도는 일반 통제 영역, 특수 통제 영역, 그리고 통제 양식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반 통제 영역과 통제 양식 척도만을 분석하였다. 일반 통제 영역은 다시 긍정적 통제감, 부정적 통제감, 그리고 통제 욕구의 세 가지 하위 척도로 나누어지며(전반

스크리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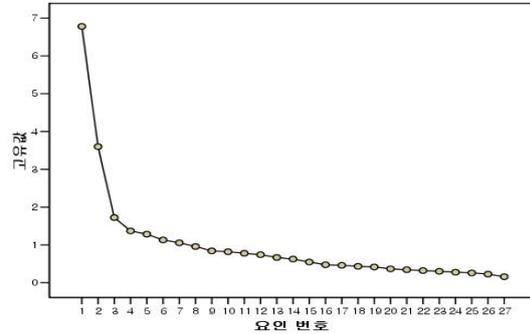


그림 1. K-SCI 일반 통제 영역의 탐색적 요인분석 Scree Plot

적 통제감은 긍정적 통제감의 값에 부정적 통제감을 역산한 값을 더하여 계산하므로 위 세 가지 하위 척도에 대해서만 요인 분석함), 통제 양식은 긍정적 유위 양식, 긍정적 무위 양식, 부정적 유위 양식 및 부정적 무위 양식의 네 가지 하위 척도들로 구성된다. K-SCI 일반 통제 영역에 포함된 하위 척도들(긍정적 통제감, 부정적 통제감, 및 통제 욕구)의 잠재 요인 구조가 원 SCI 척도의 요인 구조와 일치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 통제 영역 문항들의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요인 추출은 주축 요인 추출법을 사용하였으며, 하위 요인들 간의 상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각 회전의 일종인 직각 오블리민 방식을 사용하였다. 원 척도에서 3개의 요인을 가정하였으므로, 요인 수는 3으로 지정하였다.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scree plot 상에서 3개의 주요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요인 1은 원척도의 긍정적 통제감을 요인 2는 통제 욕구를 그리고 요인 3은 부정적 통제감을 나타내고 있다. 대개의 문항들이 원 척도의 요인과 일치했으나, 3번 문항 “내 삶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한다.”의 경우 원 척도에서는 통제 욕구 요인에 속했으나, 요인 분석 결과 긍정적 통제감 요인에 대한 부하량이 통제 욕구 요인에 대한 부하량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29번 문항 “내가 한 때는 통제할 수 있었던 영역에서 통제를 잃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원 척도에서는 부정적 통제감에 해당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통제 욕구 요인으로 나타났다. 11번 문항 “내가 변화시키거나 바꿀 수 없는 것을 침

표 1. K-SCI 일반 통제 영역의 요인 부하량(형태 계수)

문	항	요인1	요인2	요인3
14.	나는 명확하고 현실적이고 의미있는 목표들을 세울 수 있다.	.733		
18.	나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729		
17.	나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710		
13.	내 삶에서 중요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을 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	.656		
15.	나 자신의 감정과 동기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것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다.	.614		
33.	나는 적절한 수준의 자기-통제력을 지니고 있다.	.600		
12.	내가 원하는 것을 변화시키거나 바꾸기 위해 주장적이고 단호하게 행동할 수 있다.	.546		
16.	내가 통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적절한 책임을 지고 있다.	.514		
3.	내 삶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한다.	.482	.311	
2.	내가 결심만 한다면 내 인생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478		
1.	내 삶에 있어서 긍정적인 통제감을 갖고 있다.	.462		
11.	내가 변화시키거나 바꿀 수 없는 것을 침착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256		
24.	나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584	
30.	나에게는 성취가 중요하다.		.572	
6.	통제력을 잃는 것이 두렵다.		.511	
36.	힘을 갖는다는 것이 나에게는 중요하다.		.508	
27.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삶이 잘 통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중요하다.		.484	
31.	나는 내 주변의 일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을 좋아하며, 모호하고 불확실한 것을 싫어한다.		.469	
37.	분노를 더 잘 통제하고 싶다.		.427	
4.	통제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439	
32.	어려운 결정을 하기 전에,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려 한다.		.429	
25.	나는 환경(사람들,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395	
29.	내가 한 때는 통제할 수 있었던 영역에서 통제를 잃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336	
8.	내 주변 환경(다른 사람, 상황)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하다.			.638
7.	나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			.593
26.	다른 사람들이 나를 너무 통제하고 있다.			.514
9.	나는 너무 수동적이고 무기력하다.			.510
	고유치	6.50	3.61	1.46
	설명 변량	24.06	13.38	5.42

착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만이 유일하게 .30 이하의 요인 부하량을 나타냈다.

연구자들은 3번 문항의 경우, 두 요인에 .30이상의 교차 부하량을 갖을 뿐 아니라 확인적 요인 분석 시 척도에서 제외되었을 때 적합도 지수가 상당히 향상되었으므로 한국판에서는 포함하지 않기로 하였다. 29번 문항의 경우 원 척도에서는 부정적 통제감 요인이었으나, 통제 욕구 요인에 속했다. 그러나, 양쪽 요인 모두에서 이 문항의 문

항-전체 상관 관계가 .30이하였고 문항 제거 시 α 수준도 높아지는 등 내적 합치도를 해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판에서는 이 문항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11번 문항의 경우는 긍정적 통제감 요인의 다른 문항 내용들과 달리 일종의 수용적인 통제감을 담고 있다. 이 문항 또한 문항-전체 상관이 .30이하였고, 문항 제거 시 α 수준이 높아져 내적 합치도에 기여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문항 또한 한국판에서는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긍정적 통

표 2. K-SCI 일반 통제 영역의 최종 문항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문항	평균 (SD)	문항-전체 상관	문항 제거시 Cronbach α	내적합치도 Cronbach α
긍정적 통제감	14	3.45(1.01)	.650	.850	.868
	18	3.01(.95)	.566	.857	
	17	3.12(.87)	.585	.855	
	13	3.71(.91)	.623	.852	
	15	3.49(.91)	.576	.856	
	33	3.45(.86)	.666	.849	
	12	3.10(.94)	.512	.861	
	16	3.40(.77)	.556	.858	
	2	3.70(.97)	.578	.856	
	1	3.49(.96)	.533	.860	
통제 욕구	24	3.86(.99)	.536	.730	.763
	30	3.92(.96)	.526	.732	
	6	2.90(1.26)	.420	.745	
	36	3.39(1.10)	.505	.733	
	27	2.67(1.21)	.355	.755	
	31	3.52(1.06)	.360	.752	
	37	2.89(1.29)	.382	.752	
	4	3.09(1.11)	.422	.744	
	32	3.78(.96)	.365	.751	
	25	3.02(1.20)	.449	.741	
부정적 통제감	8	3.81(.98)	.562	.620	.718
	7	4.13(.93)	.543	.633	
	26	4.17(.87)	.370	.679	
	9	4.16(.96)	.552	.626	

표 3. K-SCI 일반 통제 영역 척도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TLI	CFI	RMSEA
3요인 모형	568.6	249	.972	.976	.080

제감 요인 10문항, 통제 욕구 요인 10문항, 그리고 부정적 통제감 요인 4문항으로 구성된 총 24문항의 일반 통제 영역 척도를 확정하였다. 표 2에 K-SCI 일반 통제 영역의 요인과 신뢰도 계수를 제시하였다. 세 요인의 내적 합치도 지수 α는 .718에서 .868로 양호하였고, 문항-전체 상관 또한 .355~.666로 양호하였다. 문항을 제거했을 경우 신뢰도가 향상되는 경우는 없었으며,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843이었다.

K-SCI 일반 통제 영역 척도의 요인 구조가 타당한가를 입증하기 위해 201명을 대상으로 최대 우도 방식의 확인

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부합도 지수는 모두 수용할만했고, 요인 계수 또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K-SCI 통제 양식 척도의 탐색적 요인 분석, 신뢰도 검증, 및 확인적 요인 분석

K-SCI 통제 양식 척도는 긍정적 유위 양식, 긍정적 무위 양식, 부정적 유위 양식, 및 부정적 무위 양식의 네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전체 문항은 49개이다. 우선, 49문항을 대상으로 요인수를 4로 지정한 후 탐색적 요인 분석(주축 요인 추출법, 직접 오블리민 사각 회전 방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scree plot 상의 주 요인은 4개로 나타났다. 요인 분석 결과 긍정적 유위 양식과 긍정적 무위 양식에 부하된 문항들은 대개 원 척도 문항들과 일치하였으나, 부정적 유위 양식과 부정적 무위 양식의 경우 두 요인에 부하된 문항들이 원 척도와 일치하지 않았다. 요인 1에는 원 척도의 긍정적 유위 양식에 해당하는 문항들 대부분과, 부정적 유위 양식에 속하는 문항 중 일부가 포함되었다. 요인 2는 긍정적 무위 양식에 해당하는 문항들만 부하되었다. 요인 3과 요인 4는 예상과 달리 원 척도의 부정적 유위 양식과 부정적 무위 양식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통제 양식 척도 문항 해석에 있어서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원 척도와 다른 요인 구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 49개 문항들의 부정-긍정 속성과 무위-유위 속성에 대한 문항 평가를 45명의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 5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예측한 바와 같이 몇 개의 문항들은 원척도와는 다른 속성으로 한국인들에게 이해되고 있었다. 통제 양식 문항들의 부정-긍정 속성은 ‘비판적인’, ‘방어적인’, ‘긴장하는’, ‘밀어붙이는’ 과 같은 문항들의 부정-긍정 평가치가 절대값 1 미만으로 중립적인 수준으로 나타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원척도와 일치했다.

한국판 통제 양식 문항들의 무위-유위 속성에 있어서는 원 척도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문항들이 꽤 많이 나타났다. ‘참을성 없는’, ‘합리적인’, ‘관계를 맺는’, ‘주의깊은’ 등의 문항들은 원 척도에서 유위적 양식을 측정하는 문항이었으나, 한국판에서는 무위적 속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변화를 꺼려하는’, ‘방어적인’, ‘긴장하는’,

표 4. K-SCI 통제 양식 척도의 예비 요인분석 결과

문항	원척도요인	한국판 문항평가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28. 주장적인	+ 유위	+ 유위	.761			
47. 주도적인	+ 유위	+ 유위	.709			
34. 자신감있는	+ 유위	+ 유위	.647			
7. 결단력있는	+ 유위	+ 유위	.636			
44. 논리적인	+ 유위	+ 유위	.633			
33. 밀어붙이는	- 유위	중립 유위	.633			
12. 선도하는	+ 유위	+ 유위	.631			
16. 조종하는	- 유위	- 유위	.619			
18. 주체적인	+ 유위	+ 유위	.610			
5. 독립적인	+ 유위	+ 유위	.487			
27. 목적이 있는	+ 유위	+ 유위	.477			
43. 비관적인	- 유위	중립 유위	.448			
30. 독단적인	- 유위	- 유위	.448			
36. 공격적인	- 유위	- 유위	.436			-.336
15. 탐험적인	+ 유위	+ 유위	.403			
10. 욕구를 표현하는	+ 유위	+ 유위	.393			
2. 합리적인	+ 유위	+ 무위	.374			
49. 개방적인	+ 무위	+ 무위	.353			
24. 조직적인	+ 유위	+ 유위	.341			
22. 관계를 맺는	+유위	+ 무위	.341			
40. 책임감있는	+ 유위	+ 중립	.333			
4. 온화한	+ 무위	+ 무위		.669		
37. 받아들이는	+ 무위	+ 무위		.611		
42. 부드러운	+ 무위	+ 무위		.593		
21. 수용하는	+ 무위	+ 무위		.551		
32. 느긋한	+ 무위	+ 무위		.516		
39. 양보하는	+ 무위	+ 무위		.495		
35. 참을성있는	+ 무위	+ 무위		.491		
17. 흐름에 맡기는	+ 무위	+ 무위		.484	.321	
13. 경청하는	+ 무위	+ 무위		.476		
25. 흘러가게 하는	+ 무위	+ 무위		.459		
29. 신뢰하는	+ 무위	+ 무위		.429		
41. 충동적인	- 유위	- 중립			.540	
46. 차분한	+ 무위	+무위		.367	-.485	
48. 주의깊은	+ 유위	+무위			-.428	-.325
11. 조종당하는	- 무위	- 무위			.359	-.301
8. 섬세한	+ 무위	+무위			-.331	
1. 참을성없는	- 유위	- 무위			.322	
6. 이기적인	- 유위	- 유위			.275	
9. 변화를 꺼려하는	- 유위	- 중립				-.596
20. 소심한	- 무위	- 무위				-.569
19. 과잉통제하는	- 유위	- 유위				-.553
14. 방어적인	- 유위	중립/중립				-.518
23. 긴장하는	- 유위	- 무위				-.499
26. 과거지향적인	- 무위	- 무위				-.469
45. 억누르는	- 유위	- 중립				-.460
31. 의존하는	- 무위	- 무위			.304	-.387
3. 우유부단한	- 무위	- 무위				-.351
38. 완고한	- 유위	- 유위				-.340

표 5. K-SCI 통제 양식 척도의 문항 평가

문항	원칙도 요인	부정(-)/긍정(+) 속성	무위(-)/유위(+) 속성
1. 참을성없는	부정 유위	-1.67	-1.02(불일치)
2. 합리적인	긍정 유위	3.04	-1.07(불일치)
3. 우유부단한	부정 무위	-1.64	-2.67
4. 온화한	긍정 무위	3.23	-3.47
5. 독립적인	긍정 유위	3.02	2.31
6. 이기적인	부정 유위	-1.47	1.64
7. 결단력있는	긍정 유위	2.89	2.31
8. 섬세한	긍정 무위	2.87	-1.87
9. 변화를 꺼려하는	부정 유위	-1.62	-.80(중립적)
10. 욕구를 표현하는	긍정 유위	1.82	2.29
11. 조종당하는	부정 무위	-2.73	-2.49
12. 신도하는	긍정 유위	1.40	2.69
13. 경청하는	긍정 무위	3.67	-3.47
14. 방어적인	부정 유위	-.33(중립적)	.58(중립적)
15. 탐험적인	긍정 유위	3.00	2.29
16. 조종하는	부정 유위	-1.91	2.80
17. 흐름에 맡기는	긍정 무위	2.31	-3.00
18. 주체적인	긍정 유위	3.16	2.31
19. 과잉통제하는	부정 유위	-2.20	3.20
20. 소심한	부정 무위	-1.13	-1.51
21. 수용하는	긍정 무위	3.29	-3.71
22. 관계를 맺는	긍정 유위	2.91	-1.53(불일치)
23. 긴장하는	부정 유위	-.53(중립적)	-.18(중립적)
24. 조직적인	긍정 유위	1.51	1.27
25. 흘러가게 하는	긍정 무위	2.20	-2.76
26. 과거지향적인	부정 무위	-1.60	-1.01
27. 목적이 있는	긍정 유위	2.27	2.09
28. 주장적인	긍정 유위	1.64	3.38
29. 신뢰하는	긍정 무위	3.87	-2.11
30. 독단적인	부정 유위	-1.67	2.40
31. 의존하는	부정 무위	-1.47	-2.67
32. 느긋한	긍정 무위	1.89	-2.42
33. 밀어붙이는	부정 유위	-.27(중립적)	2.67
34. 자신감있는	긍정 유위	3.71	1.42
35. 참을성있는	긍정 무위	3.00	-2.16
36. 공격적인	부정 유위	-1.60	2.49
37. 받아들이는	긍정 무위	2.44	-3.22
38. 완고한	부정 유위	-1.46	2.07
39. 양보하는	긍정 무위	2.16	-2.80
40. 책임감있는	긍정 유위	3.57	.82(중립적)
41. 충동적인	부정 유위	-1.58	-.40(중립적)
42. 부드러운	긍정 무위	3.11	-2.53
43. 비판적인	부정 유위	.11(중립적)	1.82
44. 논리적인	긍정 유위	1.89	1.23
45. 억누르는	부정 유위	-1.80	.71(중립적)
46. 차분한	긍정 무위	2.78	-2.02
47. 주도적인	긍정 유위	2.69	2.38
48. 주의깊은	긍정 유위	3.62	-1.66(불일치)
49. 개방적인	긍정 무위	3.09	-1.24

주. N=45

‘책임감 있는’, ‘충동적인’, ‘억누르는’과 같은 문항들은 무위-유위 속성이 중립적이었다.

이러한 문항 평가 결과를 요인 분석 결과와 비교해 본 결과, 주로 무위-유위 속성에 대한 문화적인 평가의 차이로 인해 요인 구조가 원 척도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예측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원 척도에서는 부정적 유위 양식에 속했던 문항들(충동적인, 참을성 없는, 변화를 꺼려하는, 방어적인, 긴장하는, 억누르는 등)이 한국판 척도의 문항 평가에서는 부정적 무위 양식이거나 중립적인 속성으로 평가되었다. 요인 3과 요인 4에 부하된 문항들이 원 척도의 요인과 비교해 보면 혼재된 양상이지만, 한국판 문항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보면, 두 요인에 부하된 대부분의 문항들이 대부분 부정적 무위 양식으로서 요인 3은 충동성과 관련된 잠재요인을 요인 4는 방어성과 관련한 잠재요인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부정적 유위 양식에 속한 문항들 중 주로 공격성과 관련된 문항들은 요인 1에 부하되었다.

연구자들은 네 가지 통제 양식에 해당하는 문항을 어떤 식으로 결정할 것인가를 토론했던 결과, SCI 척도가 제안한 새로운 관점, 즉, 기존 심리학에서 유위적 통제는 긍정적이고, 무위적 통제는 부정적이라는 통념을 뛰어 넘어, 긍정적인 무위적 통제 양식과 부정적인 유위적 통제 양식이라는 구성 개념을 포함한 것을 최대한 살리는 방식으로 K-SCI 통제 양식 척도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부정적 유위 방식과 부정적 무위 방식이 원 척도에서와 같이 명료하게 구분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한국판 문항 평가를 통해 원 척도와 무위-유위 속성이 불일치하거나 중립적인 문항들을 제거한 후 요인을 추출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방법은 긍정 문항들과 부정 문항들을 별개로 요인을 추출하였을 시 각각 무위-유위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로 구분되는 가를 보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부정적 유위 요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원 척도에서 부정적 유위 양식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대부분 제거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두 번째 방법 즉, 긍정 문항들과 부정 문항들을 별개로 요인 분석한 결과를 표 6과 표 7에 제시하였다. 긍정 문항 요인 분석 결과 scree plot 상 2요인 구조가 나타났고, 두 개의 요인에 부하된 문항들은 원 척도의 긍정적 유위 양식과 긍정적 무위 양식 문항들과 대부분 일치했다.

표 6. K-SCI 통제 양식 척도의 긍정 문항 요인 분석 결과

문 항	원척도 요인	한국판 문항평가	요인 1	요인 2
28. 주장적인	+ 유위	+ 유위	.784	
47. 주도적인	+ 유위	+ 유위	.728	
7. 결단력있는	+ 유위	+ 유위	.673	
34. 자신감있는	+ 유위	+ 유위	.670	
18. 주체적인	+ 유위	+ 유위	.649	
12. 선도하는	+ 유위	+ 유위	.611	
44. 논리적인	+ 유위	+ 유위	.601	
5. 독립적인	+ 유위	+ 유위	.530	
27. 목적이 있는	+ 유위	+ 유위	.530	
15. 탐험적인	+ 유위	+ 유위	.402	
10. 욕구를 표현하는	+ 유위	+ 유위	.393	
2. 합리적인	+ 유위	+ 무위	.382	
40. 책임감있는	+ 유위	+ 유위	.370	
49. 개방적인	+ 무위	+ 무위	.334	
22. 관계를 맺는	+ 유위	+ 무위	.332	
24. 조직적인	+ 유위	+ 유위	.332	
48. 주의깊은	+ 유위	+ 무위	.298	
21. 수용하는	+ 무위	+ 무위		.645
37. 받아들이는	+ 무위	+ 무위		.642
42. 부드러운	+ 무위	+ 무위		.587
4. 온화한	+ 무위	+ 무위		.563
39. 양보하는	+ 무위	+ 무위		.539
25. 흘러가게 하는	+ 무위	+ 무위		.510
32. 느긋한	+ 무위	+ 무위		.503
17. 흐름에 맡기는	+ 무위	+ 무위		.495
13. 경청하는	+ 무위	+ 무위		.471
35. 참을성 있는	+ 무위	+ 무위		.468
46. 차분한	+ 무위	+ 무위		.465
29. 신뢰하는	+ 무위	+ 무위		.394
8. 섬세한	+ 무위	+ 무위	.192	.174

‘개방적인’ 이란 문항만이 원 척도와 한국판 문항 평가에서 모두 긍정적 무위에 해당했으나, 요인분석 결과에서는 긍정적 유위 양식에 부하되었다. 연구자들은 이 문항이 수용적이고 허용적인 측면도 반영하지만, 의지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의 심리적 속성 또한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한국판에서는 긍정적 유위 양식 문항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부정 문항들의 경우 우선, 부정 문항 전체로 요인을 추출해 본 결과 원척도에서는 부정적 유위 양식에 속했던 5문항(긴장하는, 방어적인, 억누르는, 변화를 꺼려하는, 과잉 통제하는)이 한국판에서는 부정적 무위양식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이 중 앞의 4문항은 한국판 문항 평가에서

표 7. K-SCI 통제 양식 척도의 부정 문항 요인 분석 결과

문항	원척도 요인	한국판 문항평가	요인 1	요인 2
20. 소심한	- 무위	- 무위	.696	
3. 우유부단한	- 무위	- 무위	.597	
14. 방어적인	- 유위	중립/중립	.592	
23. 긴장하는	- 유위	- 중립	.587	
31. 의존하는	- 무위	- 무위	.538	
26. 과거지향적인	- 무위	- 무위	.528	
45. 억누르는	- 유위	- 중립	.516	
9. 변화를 꺼려하는	- 유위	- 중립	.477	
11. 조종당하는	- 무위	- 무위	.453	
19. 과잉 통제하는	- 유위	- 유위	.395	
30. 독단적인	- 유위	- 유위		.650
16. 조종하는	- 유위	- 유위		.638
36. 공격적인	- 유위	- 유위		.619
33. 밀어붙이는	- 유위	중립 유위		.560
43. 비판적인	- 유위	중립 유위		.492
38. 완고한	- 유위	- 유위		.382
41. 충동적인	- 유위	- 중립		.290
6. 이기적인	- 유위	- 유위		.225
1. 참을성없는	- 유위	- 무위		.128

무위-유위 속성의 평가치가 절대값 1이하의 중립적 수준인 문항들이었다. 연구자들은 원 척도와 한국판 문항 평가 모두에서 부정적 무위 양식으로 나타난 문항들(소심한, 우유부단한, 의존하는, 과거 지향적인, 조종당하는)과 앞의 4문항 내용을 비교해본 결과 서로 유사한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한국판에서는 부정적 무위 양식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과잉 통제하는’ 문항의 경우는 원 척도와 한국판 문항 평가 모두에서 부정적 유위 속성을 나타냈으나, 요인 분석에서는 부정적 무위 양식에 부하되었다. 과잉 통제가 부정적 무위 양식 요인에 포함되는 이유를 추론해 본다면, 동양인들에게는 통제의 의미가 외부 환경에 대한 조작과 변화로서가 아니라 자신과 내면에 대한 억제로 이해되는 경향 때문일 것이다(조공호, 2003). 그러나, 이 문항의 경우 한국판 문항 평가와 요인 분석에서 서로 상반되는 속성을 나타내므로 혼란을 피하기 위해 분석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요인 부하량이 .30이하인 문항들과 문항-전체상관이

표 8. K-SCI 통제 양식 척도의 문항 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문항	평균 (SD)	문항-전체 상관	문항 제거시 α	내적합치도 Cronbach α
긍정적 유위 양식	28	1.44(.77)	.671	.841	.858
	47	1.27(.76)	.649	.842	
	7	1.16(.79)	.561	.846	
	34	1.37(.81)	.594	.844	
	18	1.51(.72)	.608	.844	
	12	1.00(.76)	.567	.846	
	44	1.34(.77)	.532	.848	
	5	1.36(.87)	.491	.850	
	27	1.69(.81)	.480	.850	
	15	1.18(.86)	.414	.854	
	10	1.20(.76)	.358	.856	
	2	1.48(.72)	.364	.855	
	40	1.76(.76)	.375	.855	
	49	1.50(.85)	.364	.856	
긍정적 무위 양식	22	1.51(.79)	.378	.854	.822
	24	1.25(.76)	.363	.856	
	21	1.62(.73)	.538	.804	
	37	1.57(.72)	.564	.802	
	42	1.48(.76)	.582	.800	
	4	1.48(.81)	.539	.803	
	39	1.57(.71)	.462	.810	
	25	1.26(.71)	.414	.813	
	32	1.38(.89)	.444	.812	
	17	1.28(.75)	.405	.814	
	13	1.76(.78)	.455	.810	
	35	1.60(.87)	.467	.810	
	46	1.46(.84)	.447	.811	
	29	1.59(.76)	.403	.814	
부정적 유위 양식	30	.80(.75)	.502	.665	.718
	16	.86(.78)	.481	.671	
	36	.87(.76)	.496	.666	
	33	1.07(.79)	.441	.683	
	43	1.45(.78)	.440	.683	
	38	1.10(.77)	.349	.710	
부정적 무위 양식	20	1.43(.83)	.571	.737	.777
	3	1.40(.84)	.491	.750	
	14	1.42(.81)	.502	.749	
	23	1.53(.79)	.496	.750	
	31	1.24(.85)	.464	.755	
	26	1.09(.94)	.448	.759	
	45	1.31(.85)	.447	.758	
	9	1.07(.88)	.418	.763	

주. 문항범위 : 0-3

.30 이하인 문항들, 그리고 문항 평균이 지나치게 낮은 문항(11. 조종당하는, $M=.46$)을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선정

표 9. K-SCI 통제양식 척도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TLI	CFI	RMSEA
4요인 모형	1870.7	813	.919	.927	.081

한 K-SCI 통제 양식 척도의 문항 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K-SCI 통제 양식 척도의 네 가지 하위 요인들은 긍정적 유위 양식 16문항, 긍정적 무위 양식 12문항, 부정적 유위 양식 6문항, 그리고 부정적 무위 양식 8문항으로 총 4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하위요인들의 내적합치도 α 는 .718~.858로 양호했다. 모든 문항들의 문항-전체 상관 값은 .349~.671의 범위였다. 문항이 제거됨으로 인해 내적 합치도가 증가되는 문항은 나타나지 않았다.

K-SCI 통제 양식 척도의 요인 구조가 타당함을 확증하기 위해 201명을 대상으로 최대 우도 방식의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9에 제시한 바와 같이 부합도 지수는 모두 수용할만했고, 요인 계수 또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연구 2. K-SCI의 일반 통제 영역 및 통제 양식 척도의 타당도 연구

K-SCI의 타당화를 위해 우선 하위 척도들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하위 척도 간 상관 분석을 통해 K-SCI가 통제에 관련된 다면적 구성 개념들을 변별력있게 측정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수렴 타당도(내외 통제 소재, 문제 해결적 대처, 마음챙김, 수용 행동), 공존 타당도(불안, 우울,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그리고 증분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내외 통제 소재는 기존의 통제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왔던 개념이므로, K-SCI의 통제감이나 통제 양식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기위해 수렴 타당도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문제 해결적 대처는 유위적 통제양식과 유사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마음챙김과 수용행동 질문지는 무위적 통제양식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증분 타당도 검사는 K-SCI가 우울이나 안녕감에 대해 내외 통제 소재, 문제 해결적 대처, 마음챙김, 및 수용 행동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독자적인 예측 기여도를 갖는가를 확인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자

K-SCI 타당화 연구를 위해 서울 및 경기도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이 참가한 두 개의 표본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표본은 266명의 자료였다. 남자 121명(45.4%), 여자 145명(54.6%)이며, 평균 연령은 21.08($SD=2.32$)세였다. 두 번째 표본은 257명으로 남자 83명(32.3%), 여자 174명(67.7%), 평균 연령은 22.32($SD=4.44$)세였다.

연구 절차

K-SCI 타당화를 위해 두 종류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 표본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에는 한국판 Shapiro 통제 척도, 간이 정신 진단 검사 중 우울과 불안 척도,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포함하였으며, 수업 시간에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간은 약 25분이었다. 두 번째 표본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에는 한국판 Shapiro 통제 척도, 내외 통제 소재 척도, 마음챙김 척도, 수용 행동 척도, 스트레스 대처 척도, 간이 정신 진단 검사 중 우울과 불안 척도, 그리고 주관적 안녕감 척도를 포함하였다. 수업 시간을 이용하여 검사하였으며 검사시간은 약 30분이 소요되었다. 설문 참여자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였다.

측정도구

한국판 Shapiro 통제 척도(K-SCI)

연구 1에서 SCI를 한국판으로 번안하여 제작한 통제 척도로서, 일반 통제 영역에 전반적 통제감, 긍정적 통제감, 부정적 통제감, 통제 욕구의 네 가지 하위 척도가 포함되며, 통제 양식에 긍정적 유위, 긍정적 무위, 부정적 유위 및 부정적 무위의 네 가지 척도 등 총 8개의 통제 관련 구성개념들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하위척도들의 내적 합치도는 .718~.858 이었다.

내외 통제 소재 척도(Locus of Control Scale)

Clifford(1988)가 제작한 학교 공부와 관련된 통제 소재 검사를 김아영(199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Likert식의 평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간점을 기준으로 높은 점수는 내적 통제감의 지각이 높은 것으로 낮

은 점수는 외적 통제감의 지각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내적 통제감을 표현한 문항 예로는 “마음만 먹으면 좋은 점수를 낼 수 있다”, 외적 통제감을 표현한 문항 예는 “좋은 성적이나 시험 점수가 나에게서 그냥 ”재수“가 얼마나 좋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이다” 가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03이었다.

마음챙김 척도(Mindfulness Scale)

박성현(2006)이 위빠사나 명상 이론을 바탕으로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내적, 외적 경험에 대한 즉각적인 자각과 집중, 비판단적 수용, 및 탈중심적 주의의 4개의 하위 요인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문항이 역 문항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마음챙김의 정도가 강한 것으로 평가한다. 자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 예는 “나는 현재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집중 요인 문항은 “한 가지 과제나 일에 정신을 집중하기가 어렵다”, 비판단적 수용 문항 예는 “나는 스스로에게 내가 이런 것을 원해서는 안되지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탈중심적 주의 문항으로는 “닥칠지도 모르는 불행에 대해서 걱정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가 있다. 이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18이었다.

수용 행동 척도(Acceptance and Action Questionnaire)

Hayes 등(2004)이 제작한 것을 문현미(2006)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용-전념 치료에서 부정적인 내적 경험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기꺼이 경험하는 정서 수용과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면서도 어느 정도 활동에 전념하는가의 개인차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고, 5점 척도에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내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불확실하더라도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고 느끼며, 그에 전념한다” 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있다. 내적 합치도는 .796이었다.

스트레스 대처 척도

Folkman과 Lazarus(1985)가 개발한 6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로서 박애선과 이영희(1992)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문제 해결, 정서적 완화, 조력 추구, 문제 회피, 소망적 사고의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내적 합치도는 .858이었다. 문제 해결 대처 문항은 “그 문제에서 무엇인가 바람직한 것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정서적 완화 문항 예로는 “조깅이나 다른 운동을 한다”, 조력 추구 문항은 “그 문제에 대해 누군가와 의논한다”, 문제 회피 문항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 소망적 사고 문항에는 “그 문제가 없어지거나 끝나기를 바란다” 등이 있다.

간이 정신 진단 검사(SCL-90-R)

김광일, 김재환과 원호택(1984)이 표준화한 SCL-90-R은 9개의 증상 차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고 9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안과 우울의 2개 증상 차원만을 측정하였다. 검사 내용은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7일 동안 경험한 증상의 정도에 따라 ‘전혀없다’(0점)에서 ‘아주 심하다’(4점)의 5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기운이 없고 침체된 기분이다”, “허무한 느낌이 든다” 등이 우울 문항의 예이고,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된다”, “안절부절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 등은 불안 문항의 예이다.

주관적 안녕감

삶에 대한 만족 척도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가 개발한 삶에 대한 만족 척도(SWLS)를 사용하였다. 응답자가 자기 나름의 기준을 토대로 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는 도구로서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완석 등(1997)의 분석 결과 신뢰도 계수는 .86이었다. “전체적으로 나의 삶은 나의 이상적 삶에 가깝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51이었다.

삶의 질 일반 검사

조명환(1993)이 개발한 척도로 생활 일반에 관해 얼마만큼 만족하느냐를 측정한다.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생 목표나 이상에 비추어 어느 정도 만족합니까?”와 같은 문항이 포함된다. 김완석 등(1997)의 분석 결과 신뢰도 계수는 .85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11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

Ryff(1989)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김명소 등 (2001)이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로서, 자아 수용, 환경 지배력, 긍정적인 대인 관계, 자율성, 삶의 목적 및 개인적 성장의 6개 하위척도 총 4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아 수용 문항 예는 “살아 온 내 인생을 돌이켜 볼 때, 현재의 결과에 만족한다”, 환경 지배력의 문항 예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내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긍정적인 대인 관계의 경우, “남들과 친밀한 인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 자율성의 문항으로는 “대다수의 사람들과 의견이 다를 경우에도, 내 의견을 분명히 말하는 편이다”, 삶의 목적 문항은 “미래의 계획을 따고 그 계획을 실현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즐긴다” 그리고 개인적 성장 문항으로는 “나 자신과 인생살이에 자극을 줄 만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04이다.

자료 분석

K-SCI의 하위 척도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수렴 타당도 검증을 위해 내외 통제 소개, 문제 해결 대처, 마음챙김, 수용 행동과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공존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는 불안, 우울, 주관적 안녕감, 삶의 질,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과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증분 타당도는 우울과 주관적 안녕감에 대해 K-SCI의 하위 척도들이 내외 통제 소개, 문제 해결 대처, 마음챙김 및 수용 행동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독자적인 설명력을 갖는가를 확인하였다. 통계 분석은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결 과

K-SCI 하위 척도 간 상관

K-SCI가 다면적인 통제의 구성 개념들을 측정하고 있

표 10. K-SCI 하위 척도들 간의 상관

	1	2	3	4	5	6	7	8
1. OSOC								
2. PSOC	.930***							
3. NSOC	-.492***	-.175**						
4. DFC	.134*	.291***	.225***					
5. PAMOC	.460***	.507***	-.093	.303***				
6. PYMOC	.222***	.239***	.017	.136*	.256***			
7. NAMOC	.120	.226***	.180**	.276***	.639***	.017		
8. NYMOC	-.348***	-.243***	.396***	.123*	-.280***	.340***	-.021	
	-.390***	-.308***	.378***	.249***	-.220***	.326***	.033	
M	3.56	3.46	2.00	3.33	1.46	1.60	1.10	1.32
	3.54	3.38	1.90	3.29	1.34	1.48	0.99	1.31
SD	.56	.67	.84	.63	.51	.46	.55	.52
	.54	.63	.71	.62	.43	.45	.49	.54

주 1. 표본1 N= 266. 표본 2 N= 254. OSOC : 전반적 통제감. PSOC : 긍정적 통제감. NSOC : 부정적 통제감. DFC : 통제욕구. PAMOC : 긍정적 유위 양식, PYMOC : 긍정적 무위 양식, NAMOC : 부정적 유위 양식, NYMOC : 부정적 무위양식
* $p < .05$, ** $p < .01$, *** $p < .001$
주 2. 전반적 통제감은 긍정적 통제감의 값에 부정적 통제감의 역산 값을 합산해서 계산함. 이에 따라, 긍정적 통제감과 매우 높은 상관계수를 보임.

능가를 확인하기 위해 하위 척도 간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10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두 개의 표본에서 하위 척도들 간의 상관관계수는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통제감(PSOC)은 긍정적 유위 양식과는 강한 정적 상관을 부정적 무위 양식과는 상당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긍정적 무위 양식과도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반면, 부정적 유위 양식과도 약한 수준이지만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부정적 통제감(NSOC)은 부정적 무위 양식과만 상당한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

통제 욕구는 다른 하위 척도들과 다소 모호한 관계를 나타냈다. 통제 욕구는 긍정적 통제감 뿐 아니라 부정적 통제감과도 정적인 상관 관계를 보였다. 또한, 통제 욕구는 긍정적 유위 양식과 부정적 유위 양식 모두와 상당한 정적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위 양식들과는 상관 관계가 매우 낮았다.

수렴 및 공존 타당도 검증

K-SCI의 수렴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유사한 구성 개념들인 통제 소재, 문제 해결적 대처, 마음챙김과 수용 행

동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통제 소재는 긍정적 통제감과 상당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내적 통제감을 더 높이 지각할수록 긍정적인 통제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밖에 내적 통제감을 더 지각하는 경향은 긍정적인 유위적 통제 양식 및 무위적 통제양식 모두와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문제 해결 대처는 예상한 바와 같이 긍정적 통제감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통제 양식 중 긍정적 유위 양식과 가장 강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긍정적 무위 양식과도 상당한 정적 관계가 있었다. 정서 완화적 대처는 부정적인 유위 양식과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마음챙김과 수용 행동 모두 긍정적 통제감과 강한 정적 상관을, 부정적 통제감과 강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예측한 바와 달리 마음챙김과 수용 행동은 긍정적 무위 양식과는 관계가 없었고 대신 부정적 무위 양식과는 강한 부적 상관을, 긍정적 유위 양식과는 상당한 정적 상관의 결과를 보였다.

통제감은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적 장애와 높은 관련성이 있었다. 긍정적 통제감은 우울, 불안과 높은 역상관을 나타낸 반면, 부정적 통제감은 강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표 11. K-SCI와 수렴 및 공존 타당도 척도들 간의 상관

척도	OSOC	PSOC	NSOC	DFC	PAMOC	PYMOC	NAMOC	NYMOC	
LOC	.288***	.302***	-.049	.198***	.258***	.223***	-.031	-.041	
SCS	문제해결	.555***	.582***	-.123*	.283***	.461***	.292***	.195**	-.170**
	정서완화	-.037	.068	.235***	.258***	.250***	.103	.405***	.146*
	조력추구	.206**	.233***	-.025	.201**	.215***	.098	.174**	-.024
	문제회피	.164**	.213***	.047	.218***	.198**	.173**	.087	.000
	소망사고	-.044	.035	.215***	.224***	.005	.110	-.005	.213***
MF	.492***	.316***	-.554***	-.254***	.213***	-.063	-.102	-.559***	
AAQ	.520***	.442***	-.336***	-.140*	.373***	.087	.161**	-.447***	
DEP	-.432***	-.316***	.421***	.154*	-.241***	-.005	-.030	.475***	
	-.382***	-.273***	.418***	.356***	-.106	.065	.161*	.541***	
ANX	-.384***	-.251***	.401***	.164*	-.103	-.038	.102	.357***	
	-.289***	-.177**	.399***	.325***	-.040	.034	.211**	.524***	
SWLS	.525***	.540***	-.156*	.029	.282***	.115	.069	-.281***	
QOL	.479***	.483***	-.187**	.028	.241***	.155*	.066	-.208**	
PWBS	.728***	.661***	-.504***	.021	.511***	.078	.099	-.528***	

주. 표본1 N= 266. 표본 2 N= 254. OSOC : 전반적 통제감. PSOC : 긍정적 통제감. NSOC : 부정적 통제감. DFC : 통제 욕구. PAMOC : 긍정적 유위 양식, PYMOC : 긍정적 무위 양식, NAMOC : 부정적 유위 양식, NYMOC : 부정적 무위 양식. SCS : 스트레스 대처, MF : 마음챙김, AAQ : 수용 행동, DEP : 우울, ANX : 불안, SWLS : 주관적 안녕감, QOL : 삶의 질, PWBS : 심리적 안녕감 * $p < .05$, ** $p < .01$, *** $p < .001$

통제 욕구와 우울, 불안의 관계가 두 표본에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표본 1은 상관이 낮게 나타난 반면, 표본 2는 상당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표본 1과 표본 2의 우울, 불안 평균을 조사해본 결과 표본 1의 경우 우울 평균=1.98, 불안평균=1.82 인 반면, 표본 2의 경우 우울 평균=1.07, 불안 평균=0.90으로 약 2배 가까운 점수 차이가 있었다. 우울, 불안이 낮은 그룹에서(표본 2) 통제 욕구와 우울, 불안의 관계는 높은 반면, 우울, 불안이 높은 그룹에서(표본 1) 통제 욕구와 우울, 불안의 관계는 낮았다. 통제 감이나 통제 양식 점수에서 두 표본 간 평균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통제 욕구가 정신 건강과 갖는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관한 설명은 논의에서 다룰 것이다. 통제 욕구는 내적 통제에 대한 지각이나 문제 해결적 대처와 같이 긍정적인 심리 속성으로 알려진 구인들과도 상당한 정적 상관을 나타낸 반면, 부정적인 심리 증상과도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우울, 불안은 부정적 무위 양식과 가장 큰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부정적 유위 양식과의 상관정도는 낮은 수준이었다. 안녕감의 지표들은 긍정적 통제감과 매우 높은 상관을 보였다. 심리적 안녕감의 경우 부정적 통제감과 강한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안녕감은 통제 욕구와는 무관했으며, 통제 양식 중에서는 긍정적 유위 양식(정적상관) 및 부정적 무위 양식(부적상관)과의 상관만 나타났다.

증분 타당도 검증

K-SCI가 측정하는 통제 관련 구성개념들이 안녕감이나 우울과 같은 정신 건강 측면에 고유한 변량을 갖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 변인으로 1단계에 투입한 변인들은 통제와 유사한 개념을 공유하고 있는 통제 소재, 문제 해결 대처, 마음챙김, 그리고 수용 행동이었다. 표 12는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K-SCI 하위 척도들의 증분 타당도를 검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K-SCI 일반 통제 영역의 세 가지 구성 개념들(통제 욕구, 긍정적 통제감, 부정적 통제감)은 8%의 추가적인 설명 변화량($\Delta R^2=.08, p<.001$)을 가졌다. 이 중 긍정적 통제감만이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예측 기여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0, p<.001$). 통제 양식 척도의 네 가지 하위 양식들은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변화량이 유의하지 않았다.

표 12.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통제욕구, 긍정적 통제감, 부정적 통제감의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결과

준거 변인	예측변인	B	SE B	β	R ²	ΔR^2
주관적 안녕감	단계 1					
	통제소재	-.07	.10	-.04	.25	.25***
	문제해결대처	.64	.11	.36***		
	마음챙김	.16	.08	.13*		
	수용	.33	.12	.19**		
	단계 2					
	통제소재	-.12	.10	-.07	.33	.08***
	문제해결대처	.38	.12	.21**		
	마음챙김	.08	.09	.07		
	수용	.15	.12	.08		
통제욕구	-.16	.09	-.11			
긍정적 통제감	.57	.10	.40***			
부정적 통제감	.02	.07	.02			

주. * $p<.05$, ** $p<.01$, *** $p<.001$

우울을 준거변인으로 했을 경우, K-SCI 척도들의 증분 타당도 검사결과를 표 13과 표 14에 제시하였다.

K-SCI 일반 통제 영역의 세 가지 구성 개념들(통제 욕구, 긍정적 통제감, 부정적 통제감)은 2%의 추가적인 설명 변화량($\Delta R^2=.02, p<.05$)을 가졌다. 이 중 부정적 통제감만이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예측 기여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8, p<.01$). 통제 양식의

표 13. 우울에 대한 통제욕구, 긍정적 통제감, 부정적 통제감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종속 변인	예측변인	B	SE B	β	R ²	ΔR^2
우울	단계 1					
	통제소재	.01	.08	.00	.40	.40***
	문제해결대처	-.18	.09	-.12*		
	마음챙김	-.52	.06	-.50***		
	수용	-.24	.09	-.16**		
	단계 2					
	통제소재	.01	.08	.00	.42	.02*
	문제해결대처	-.14	.09	-.09		
	마음챙김	-.41	.07	-.39***		
	수용	-.21	.09	-.14*		
통제욕구	.04	.07	.04			
긍정적 통제감	-.04	.08	-.04			
부정적 통제감	.18	.06	.18**			

주. * $p<.05$, ** $p<.01$, *** $p<.001$

표 14. 우울에 대한 긍정적 유위, 긍정적 무위, 부정적 유위, 부정적 무위양식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종속 변인	예측변인	B	SE B	β	R ²	ΔR^2
단계 1	통제소재	.01	.08	.00	.40	.40***
	문제해결대처	-.18	.09	-.12*		
	마음챙김	-.52	.06	-.50***		
	수용	-.24	.09	-.16**		
우울	단계 2				.43	.03*
	통제소재	.02	.08	.02		
	문제해결대처	-.15	.09	-.10		
	마음챙김	-.43	.07	-.41***		
	수용	-.18	.09	-.12*		
	긍정적 유위	.02	.12	.01		
	긍정적 무위	-.09	.10	-.05		
	부정적 유위	.05	.14	.03		
부정적 무위	.26	.10	.19**			

주. * $p < .05$, ** $p < .01$, *** $p < .001$

네 가지 하위 척도들(긍정적 유위, 긍정적 무위, 부정적 유위, 부정적 무위)의 추가 설명 변량은 3%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부정적 무위 양식만이 추가적인 예측 기여도를 갖고 있었다($\beta = .19, p < .0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Shapiro(1994)가 개발한 SCI를 엄격한 절차를 거쳐 한국판으로 번안한 K-SCI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K-SCI 일반 통제 영역 문항들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긍정적 통제감, 부정적 통제감 및 통제 욕구의 3요인을 추출하였다. 대부분의 문항들은 원 척도와 유사한 요인에 부하되었으며, 내적 합치도 수준과 확인적 요인 분석의 적합도 수준 모두 좋은 수준이었다. K-SCI 통제 양식의 경우 요인 구조를 확정하기까지 다소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다. 문항들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구인 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항들의 긍정-부정 속성과 무위-유위적 속성에 대한 문항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요인 분석의 결과와 종합하여 긍정적 유위 양식, 긍정적 무위 양식, 부정적 유위 양식, 그리고 부정적 무위 양식의 4요인과 해당 문항을 추출하였다. 4요인의 내적

합치도 수준과 확인적 요인 분석의 적합도 결과 또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K-SCI의 타당화 작업을 위해 하위 척도 간 상관, 수렴 타당도(통제 소재, 문제 해결 대처, 마음챙김, 수용 행동), 공준 타당도(우울, 불안, 안녕감 관련 척도들), 및 증분 타당도 등을 조사하였다. K-SCI에서 통제와 관련하여 측정하는 8가지의 구인들은 적당한 정도의 상관 관계를 보였고, 이들 각각이 서로 다른 구성 개념들로 변별될 수 있음을 보였다. 통제감과 통제 양식의 하위 척도들은 통제 소재, 문제 해결 대처, 마음챙김 및 수용 행동 척도들과 대부분 예측했던 바와 같은 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내적 통제감이 높은 사람들은 긍정적 통제감이 높았고, 긍정적인 통제 양식들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문제 해결 대처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긍정적 통제감이 높았으며, 긍정적 유위 양식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마음챙김 및 수용행동 모두 긍정적 통제감과는 정적 상관을 부정적 통제감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통제 양식 중에서는 부정적 무위 양식과 높은 부적 관계를 보였다. 우울,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 통제감과 강하게 관련되었으며, 부정적 무위 양식의 통제를 많이 하였다. 안녕감을 측정하는 변인들(주관적 안녕감, 삶의 질, 심리적 안녕감) 모두 긍정적 통제감과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 안녕감이 높은 사람들은 긍정적 주장 양식이 높은 반면, 부정적 무위 양식은 낮았다.

K-SCI의 통제 욕구와 관련해서는 다소 모호한 결과들이 나타났다. 통제 욕구는 다른 하위 척도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 통제감 뿐 아니라 부정적 통제감도 상당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통제 욕구는 긍정적 주장 양식 뿐 아니라 부정적 주장 양식과도 정적으로 관련되었다. 타당도 검사에서도 통제욕구는 내적 통제, 문제 해결적 대처 등과 정적 관계를 보였으나, 한 표본에서 우울이나 불안과도 상당한 정적 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반면 통제 욕구는 안녕감이나 마음챙김, 수용 행동, 무위적 통제 양식들과는 관련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통제에 대한 욕구와 정신 건강과의 관계는 상당히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통제 욕구가 긍정적 통제감과 부정적 통제감 모두와 정적으로 관련된다는 것은 상황을 자신의 기대에 맞게 변화시키려는 욕구는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

도 있음을 의미한다. 통제의 원천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믿을수록 통제 욕구는 높아졌으며, 문제 해결적 대처를 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는 통제 욕구가 높을수록 정서적 문제와 관련될 가능성 또한 커지는 것이다. 통제 욕구가 낮다는 것이 반드시 정신 건강에 해롭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마음챙김이나 수용 행동과 같이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것으로 밝혀진 내적 경험의 처리 방식들은 통제 욕구와 상관이 없거나 낮았으며, 안녕감의 지표들 또한 통제 욕구와는 거의 관련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통제 욕구가 어떠한 상황적 맥락에서 정신 건강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타당도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우울, 불안이 낮은 그룹에서 통제 욕구와 우울, 불안의 관계는 높은 반면, 우울, 불안이 높은 그룹에서 통제 욕구와 우울, 불안의 관계는 낮았다. 이러한 결과가 일종의 천장 효과 때문인지 아니면, 통제 욕구와 정서적 문제 간에 어떠한 상호 작용이 있는가를 분석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K-SCI 하위 척도 연구 결과를 보면, 한 개인은 네 가지 통제 양식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긍정적 유위 양식은 부정적 유위 양식과 매우 높은 정적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긍정적 무위 양식이나 부정적 무위 양식과도 상당한 상관 관계를 갖고 있다. 긍정적 무위 양식 또한 부정적 무위 양식과 상당한 정적 관계를 나타낸다. 이는 한 개인에 대해 4가지 통제 양식의 프로파일의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Shapiro(1994)는 심리적으로 가장 건강한 형태는 긍정적 유위 방식과 무위 방식이 통합되고, 상황에 맞게 이 두 가지 통제 방식을 유연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통제 양식의 프로파일에 따라 심리적 건강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K-SCI의 타당도 연구에서 보면, 긍정적 통제감과 부정적 통제감은 심리적 건강에 대한 추가적인 예측 기여도가 유의했으나, 통제 양식의 경우 긍정적 유위 양식과 부정적 무위 양식은 심리적 건강과 상당히 관련되었으나, 긍정적 무위 양식과 부정적 유위 양식은 심리적 건강이나 대처 양식 등과 상관이 매우 낮거나 없었다. 특히, 긍정적 무위 양식의 경우, 마음챙김이나 수용 행동과 상당한 정적 상관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상관 관계는 없

었다. 이는 SCI의 이론적 특색이 서구 심리학의 통제 개념을 뛰어넘어 동양의 무위적 통제 방식의 긍정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소 의외의 결과이다. 긍정적 무위 통제 양식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더불어, 무위(yielding)라는 구인에 대한 세밀한 분석 또한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K-SCI 통제 양식 척도의 요인 분석 시 긍정 문항과 부정 문항을 구분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점이다. 연구자들은 문항 평가를 통해 한국인들에게 미국인들과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는 문항들을 고려하고 SCI의 가장 특색있는 개념인 유위적-무위적 통제 양식을 살리기 위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다소 인위적인 요인 추출을 하였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또 다른 제한점으로는 K-SCI는 대학생 표본으로 타당화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내담자나 환자 그룹에 적용하여 일반적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오히려, 특정 그룹 별로(예로, 내담자, 노인, 신경증환자 등) K-SCI의 양상들을 연구해보는 것이 의미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K-SCI 척도는 최근 국내외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명상 연구 및 명상을 응용한 심리치료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명상을 응용한 심리 치료의 효과에 대한 개념적, 경험적 논문들을 리뷰한 Baer(2003)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효과는 상당히 유망하나, 그 치료적 메카니즘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명상이나 수용을 강조하는 치료 방법들은 과도한 통제 의제를 버리고, 원하지 않는 내외적 경험들을 수용하고, 관조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을 강조한다(문현미, 2006). K-SCI에서 측정하고 있는 다차원적인 통제에 관한 구인들, 특히 통제 양식에 있어서의 변화 양상 등을 통해 명상이나 수용에 기초한 프로그램들의 효과 및 치료 기제를 밝히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심리학 분야의 자기조절 연구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완석, 김영진 (1997). 주관적 안녕 척도 : 공동생활 및 활동과의 연관.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3(1), 61-81.
- 김아영, 김은영 (2003). Effects of different types of

- practice in cross-cultural test adaptation of affective measur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 General*, 22(1), 89-113.
- 김상희, 최정훈 (1990). 이차적 통제의 적응적 의미.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9(1), 108-119.
- 박문규, 오상우, 한성열 (1992). 통제소재 · 대처전략 · 성격특성 및 Type A · B가 특성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92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 박성현, 박정숙 (2006a). 집중적 위빠싸나 명상의 질적분석.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8(3), 629-650.
- 박성현 (2007). 위빠싸나 명상, 마음챙김, 그리고 마음챙김을 근거로 한 심리치료. 인지행동치료, 7(2), 83-105.
- 손원숙 (2003). 심리검사 변안에 대한 통합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22(2), 57-80.
- 안귀여루 (2001). 통제 소재에 따른 스트레스 과제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생리적 반응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6(1), 127-143.
- 정연승, 이영호 (2005). 건강통제소재와 통증수용, 통증대처가 통증환자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4(3), 615-629.
- 조근호 (2003). 문화성향과 통제 양식.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7(2), 85-106.
- 조명한 (1993). 정보화 사회에서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 92통신학술연구과제 보고서
- 최유희, 이희경, 이동귀 (2008). Snyder의 희망척도 한국 번역판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22(2), 1-16.
- Affleck, g., Tunnen, H., Pfeiffer, C., & Fifield, J. (1987). Appraisals of control and predictability in adapting to a chronic diseas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273-239.
- Averill, J. R. (1973). Pesonal control over aversive stimuliand its relationship to stress. *Psychological Bulletin.*, 80, 286-303.
- Baer, A. R. (2003). Mindfulness training as a clinical intervention : A conceptual and empirical review. *Clinical Psychology : Science and Practice*, 10(2), 125-143.
- Bandura, A. (1989a). Human agency in social cognitive theory. *American Psychologist*, 44, 1175-1184.
- Bandura, A. (1989b). Perceived self-efficacy in the exercise of personal agency.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10, 411-424.
- Benson, D. R. (1991). The relationship between locus-of-control, trait anxiety, and behavior in a control limited environ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enver university, *Dissertation Abstracts*, 3332-B, 184.
- Deane, H. Shapiro & John A. Astin. (1998). *Control therapy*. John Wiley & Sons, Inc.
- Esterline, B. (1992). Measuring stress and control in meditators through trait, state, and in vivo experience sampl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Institute of Integral Studies.
- Folkman, S., & Lazarus, R. S. (1985). If it changes it must be a process :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a college 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150-170.
- Frank, R. G., Van Valin & Elliot, T. R. (1987). Adjustment to spinal cord injury : A review of empirical and nonempirical studies. *Journal of Rehabilitation*, 53, 43-48.
- Hambleton, R. K. (1994). Guidelines for adapting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tests : A progress Report.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10(3), 229-244.
- Hambleton, R. K., & Kanjee, A. (1995). Increasing the validity of cross-cultural assessments : Use of improved methods for test adapatation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11(3), 147-157.
- Hulin, C. l., Drasgow, F., & Komokar, J. (1982). Applications of item response theory to analysis of scale transla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7, 818-825.
- Jensen, M. P., & Karoly, P. (1991). Control beliefs,

- coping effort, and adjustment to chronic pai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 431-438.
- John A. Astin & Deane H. Shapiro, Jr. (1997). Measuring the psychological construct of control : Applications to transpersonal psychology. *The Journal of Transpersonal Psychology*, 29(1), 63-72.
- Lazarus, R. (1981). The stress and coping paradigm. In C. Eisendorf, D. D. Cohen, A. Kleinman, & P. maxim(Eds.), *Models for clinical psychopathology* (pp.177-214). New York : SP Medical and Scientific Books.
- Lefcourt, H. M., Miller, F. S., Ware, E. E., & Schenk, K. (1981). Locus of control as a modifie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ors and mood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357-369.
- Levenson, H. (1973). Multidimensional Locus of control in psychiatric pati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1, 397-404.
- Maddi, S., & Kobasa, S. (1984). *The hardy executive : Health under stress*. Homewood, IL : Dow Jones-Irwin.
- Meichenbaum, D. (1977). *Cognitive behavior modification : An intergative approach*. New York : Plenum Press.
- Phares, E. J. (1976). *Locus of control in personality*. Morristown, NJ : General Learning Press.
- Ray, W. J., & Katahn, M. (1968). Relation of anxiety to locus of control. *Psychological Report*, 23, 1196.
- Rothbaum, F. M., & Weisz, J. R. (1989). *Child pathology and the quest for control*. Newbury Park, CA : Sage.
- Rothbaum, F., Weisz, J. R., & Snyder, S. (1982). Changing the world and changing the self : A two-process model of perceived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5-37.
- Rotter, J.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80(Whole No. 609).
- Rotter, J. (1990).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American Psychologist*, 45, 489-493.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Shapiro, D. H. (1994a). *Manual for the Shapiro control Inventory(SCI)*. Palo Alto, CA : Behaviordata.
- Shapiro, D. H., & Astin, J. A. (1998). *Control Therapy : An Integrated Approach to Psychotherapy, Health, and Healing*.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 Shapiro, D. H., Schwartz, C. B., & Astin, J. A. (1996). Controlling ourselves, controlling our world : Psychology's role in understanding Positive and negative consequence of seeking and gaining control. *American Psychologist*, 51, 1213-1230.
- Seligman, M. E. P. (1991). *Learned optimism*. New york : Knopf.
- Strassberg, D. S. (1973). Relationships among locus of control, anxiety, valued-goal expect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1, 319.
- Weisz, J. R., Rothbaum, F. M., & Blackburn, T. C. (1984). Standing out and standing in : The psychology of control in America and Japan. *American Psychologist*, 39, 955-969.
- Wallstone, K. A., Wallstone, B. S., & DeVellis, R. (1978). Development of the multidimensional health locus of control scales. *Health Education Monographs*, 6(2), 160-170.
- Wallstone, K. A., & Wallstone, B. S. (1981). Health locus of control scales. In H. Leftcourt(Ed.), *Research with the locus of control construct*. New York : Academic Press.
- White, R. W. (1959). Motivation reconsidered : The concept of competence. *Psychological Review*, 66, 297-331.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Shapiro Control Inventory

Seoung-Yun Sung Sung-Hyun Park

Seoul University of Buddhism

In this study, a translated Korean version of Shapiro Control Inventory (SCI) originally developed by Shapiro (1993) was applied in an effort to investigate its psychometric properties. To do this,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item analysis were performed with data from 565 college and/or graduate students, completing Korean-SCI. The result of psychometric property test showed acceptable reliability and the factor structure confirmed b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found to be same as the original scale. In general domains of control, the K-SCI was found to be constructed with the positive sense of control, the desire for control and the negative sense of control. As to control modes, four factors were extracted; the positive assertiveness, the positive yielding, the negative assertiveness, and the negative yielding. The convergent-discriminant validity test and incremental validity were also tested with various variances; locus of control, mindfulness, acceptance and action, depression, anxiety, and well-being related scales. The clinical application of the K-SCI were also discussed.

Keywords: Control; Control mode; Sense of control; Desire for control

1차원고 접수일 : 2008년 10월 8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08년 11월 21일
게재 확정일 : 2008년 11월 26일